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 고대 안암병원 JCI 인증 3차 연속 획득 성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3차례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평가기준이 한층 강화된 5번째 인증기준집으로 3차 인증까지 받은 병원은 고대 안암병원이 국내 최초이다. 이미 1차, 2차 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관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3차 연속 인증을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의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갖춘 KOREA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JCI 인증은 병원의 의료프로세스를 환자의 안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평가로 고대안암병원은 2009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첫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2012년 재인증을 넘어 2015년 3차 인증까지 성공했다.

1차, 2차에 이어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이번 2015년 3차 인증은 304개의 까다로운 인증기준과 1,222개의 항목인 JCI 인증기준집 5번째 개정판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의료진 교육 및 인간 대상 연구 부문이 추가되고,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 부분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진료와 환자 안전, 질 향상과 더불어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분야가 추가돼 진료뿐 아니라 다각도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자질을 평가받

았다. 이렇듯 까다로운 5번째 기준집으로 3차 인증까지 받은 병원은 국내에서 고대안암병원이 유일하다. 고대안암병원은 1,222개의 항목 중 98%를 완전히 충족하며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의 인증조사 기간 동안 훨씬 강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안암병원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살펴본 조사위원들은 매일 진행된 일일보고와 마지막 총평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완벽에 가까운 안암병원의 의료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호응, 그리고 친절한 미소에 아낌없는 칭찬을 주었다. 평가자들은 "조사를 위해 외래를 다니면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의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근무 중임에도 우리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서 전달하려는 모습이 매우 좋았다"고 칭찬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3차 평가는 지난 평가들과는 달리 진료를 줄이지 않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조사에 임했다는

것이다. 더욱 강화된 인증기준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진료하며 조사를 받은 것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안전문화가 이미 JCI 기준 이상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는 안암병원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다.

JCI 인증이 의료기관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을 준비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가치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암병원의 JCI인증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환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은 "이미 고대안암병원은 JCI인증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며 인증을 뛰어넘는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3차 JCI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3차 인증이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 고려대학교병원 의학발전기금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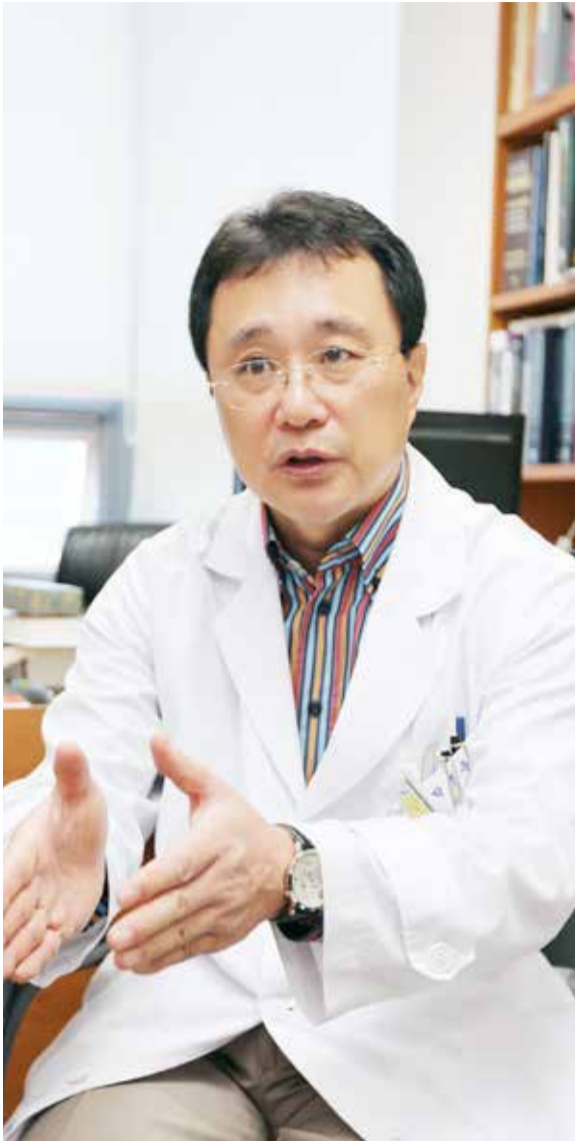
15.09.22	임순광	₩ 5,000,000	15.11.05	김미경	₩ 240,000
15.09.23	나홍식	₩ 1,000,000	15.10.30	김상희	₩ 2,400,000
15.10.01	이순영	₩ 3,000,000	15.11.06	김영국	₩ 1,200,000
15.10.12	김동식	₩ 600,000	15.11.15	김진태	₩ 480,000
15.10.17	남연우	₩ 5,000,000	15.11.06	박세근	₩ 960,000
15.10.19	우수경	₩ 2,000,000	15.11.04	박지희	₩ 10,000,000
15.10.29	이지연	₩ 240,000	15.11.06	송동호	₩ 6,000,000
15.11.05	최운정	₩ 7,200,000	15.11.06	신영규	₩ 6,000,000
15.11.05	윤재균	₩ 1,440,000	15.11.06	양해정	₩ 2,400,000
15.10.30	김규호	₩ 2,400,000	15.11.06	이종덕	₩ 2,400,000
15.11.12	차경호	₩ 5,000,000	15.11.06	피대훈	₩ 6,000,000
15.11.11	김경범	₩ 1,200,000	15.11.09	한재준	₩ 24,000,000

#### 미주지역 기부방법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  
EMAIL info@ifku.net (Attn :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  
wkang@foxrothschild.com)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http://www.ifku.net



# “사춘기 뼈 통증 지속땀 골육종 의심해봐야”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

수술중 감염·합병증 낮추려  
무수혈 수술방식 적용...  
종양제거후 항암치료 지속

어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신을 닮았다. 골육종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생긴 암을 본인들의 부족한 관심 때문이란 자책하곤 한다. 그런 부모들 곁에 골육종 명의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가 있다.

골육종은 15세 이하 소아청소년기에 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다.

주로 뼈 성장이 활발한 무릎 주위 뼈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 드물게 골육종은 골반뼈, 척추뼈에 발생하기도 한다. 골육종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령’에 있다. 박 교수는 “골육종이 주로 발생하는 13~15세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들 역시 아이의 뼈에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양전문의가 있는 정형외과를 찾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골육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과 통증 부위가 붓는 것이다.

골육종 호발 연령대는 아이들의 자립심이 강해지는 시기다.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손길을 떠나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샤워를 한다. 부모도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부은 무릎’을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체육 등 활동력이 많아지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몸이 좀 붓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줄어들고 아이의 세심한 주의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맞물려 골육종의 조기 진단이 힘들어진다.

박 교수는 “성장통으로 오인하거나 운동 중 다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골육종의 국내 발생률이 낮은 탓에 1차 의료기관에서도 골육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3주 이상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MRI 등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 골육종으로 인한 생존율은 20%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항암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수술에 사용되는 자재의 발달로 현재 골육종의 5년 생존율은 70%까지 올라갔다. 박 교수는 “수술 전 짧은 기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다. 수술 후 다시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항암치료가 기다리고 있다. 박 교수는 성인보다 아이들이 항암치료를 잘 견뎌낸다면 대견스러워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아들이 사춘기인 탓에 적극적인 병원 방문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자신이 암환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날짜의 항암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골육종은 수술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온몸 뼈에 생기는 암인 만큼 항암치료를 보이지 않는 암까지 제거해야 완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수술 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합병증 빈도를 낮추기 위해 무수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많은 골육종 환자들을 무수혈로 치료해왔으며 수술결과 기존 수술방식에 비해 합병증 빈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린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수술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장암’ 다양한 치료법... 환자 선택폭 넓혀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

신경·혈관 등 손상없이  
암 조직만 제거에 심혈

대장암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대 초반까지 대장암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 순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대장암은 한국 남성을 괴롭히는 두 번째 암으로 꼽힌다.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 치료방식도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기본이 되는 개복수술부터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그것이다. 특히 대장암 중 직장암에서 로봇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과 결장암을 제거한다. 그는 대장암을 치료하는 각각의 방식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로봇은 복강경 단점을 보완하고 정교하고 미세한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개복 수술은 주변 장기와의 유착정도가 심한 재발 암환자에게 좋은 수술법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암 환자에게 로봇을 적용했을 때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암의 특성 때문이다. 직장암은 일반적인 대장암과 달리 골반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암 덩어리까지 접근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로봇이다. 김 교수는 “로봇은 3차원 확대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개복만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로봇 관절을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치료는 최소 침습 수술이란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신경과 혈관 등 암 주변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예쁘게 암 조직만을 떼어내는 것”이라며 “좁은 공간

에서 정밀한 절개를 요구하는 직장암의 경우 로봇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역시 치료비다. 일부 영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과 달리 로봇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수술법이다. 김 교수는 “합병증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존율 비교에서는 복강경과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는 없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수술법을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설명이 고맙다. 김 교수는 “각 수술법의 장점의 차이는 있지만 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똑같다”며 “모든 설명을 들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조기 단계에서 발견율이 높은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여전히 중증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진이 활발한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에 대해 환자가 갖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장암의 무서운 증가세를 강조하며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을 3년에서 5년 사이 꼭 해볼 것을 권장했다. 또 대장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육류를 고집하는 식단보다 육류와 생선, 야채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이뤄진 식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에 손상 되는 우리 눈!

노인성질환 백내장? 이제는 옛말

백내장은 중년이상이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었지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심해지면서 백내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명성을 잃게 되는데,

자외선이 수정체를 투과하면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혼탁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마치 창문에 성에나 수증기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강수연 교수는 “자외선은 각막·수정체·망막 등에 흡수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변성시켜 눈의 노화를 앞당긴다. 백내장의 증세가 경미할 경우에는 안경도수의 변화로 일시적으로나마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심해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백내장은 3대 실명 원인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야가 뿌옇거나 침침하게 흐려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눈 표면에 하얗게 낀 익상편

익상편은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뻗어나가 생기는 질환으로 이때 혈관조직 모양이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 해서 '군날개'라고 불리기도 한다. 흔히 '백태가 낀다'라고 표현하는 익상편은 건조한 공기, 바람, 먼지의 자극, 강한 자외선 등에 의해 발병된다. 흔히 백내장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혼탁해 지는 것이라면, 익상편은 안구 표면에 흰 살 혹은 흰 막이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익상편은 백내장과 같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심해질 경우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하얀 막이 검은 눈동자를 침범해 하얗게 덮는 것이기 때문에 충혈도 자주되고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익상편은 매우 서서히 자라는 질환이기 때문

에 초기 익상편에는 미용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자외선 차단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익상편이 너무 커서 시야가 발생하거나 각막이 눌러면서 난시가 증가해 나안시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발률이 높으므로 수술 후 상태를 본인 스스로 매일 관찰하고 안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자외선으로 눈 화상까지, 광각막염 주의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타는 것처럼 우리 눈 역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눈은 신체 부위 중 습도나 온도 등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화상을 입기 쉬우며, 특히 어른보다 안구가 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에 안구 바깥쪽에 위치한 각막이 손상을 입는, 광각막염을 주의해야 한다.

광각막염은 각막 상피 세포에 일시적인 화상 증세가 나타나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화상을 입은 순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난 후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 시림 증상, 충혈이 나타나며 계속 눈물이 나게 된다.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겨 진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각막염을 방치할 경우 벗겨진 각막을 통해 이차 세균감염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된 이후 눈에 통증이나 충혈, 이물감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강수연 교수

## 건강프로젝트: 생생건강 365



## 탈모, 여성도 안심할 수 없다!

여성 탈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 (androgen)과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수치가 낮아 잘 발생하지 않지만, 여성 탈모가 진행된다면, 여러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항진증이나, 감염과 같은 소모성 질환, 영양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에 비해 여성형 탈모는 주로 가운데 정수리 부분의 머리숱이 많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성형 탈모가 진행된다면 먼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 중에 특별히 탈모를 촉진하는 것은 없으나, 평소에 편식을 피하고, 더불어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콩은 식물성 여성호르몬이 들어 있어 여성형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 커피, 케이크, 기름진 음식 등은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동맥경화

동맥경화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지만 가족력,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도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초기 병변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만큼 동맥경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히 치료하여야 합니다.

짜지 않게 먹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버려 햄버거, 피자, 치킨 등과 같은 서구화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해지는 것을 피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혈관 관리를 위해 채소 위주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 동맥경화 환자는 근력운동보다 유산소운동이 도움이 되며, 빠르게 걷기 혹은 가벼운 조깅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운동 중에 가슴이 죄어오거나 불규칙하고 심하게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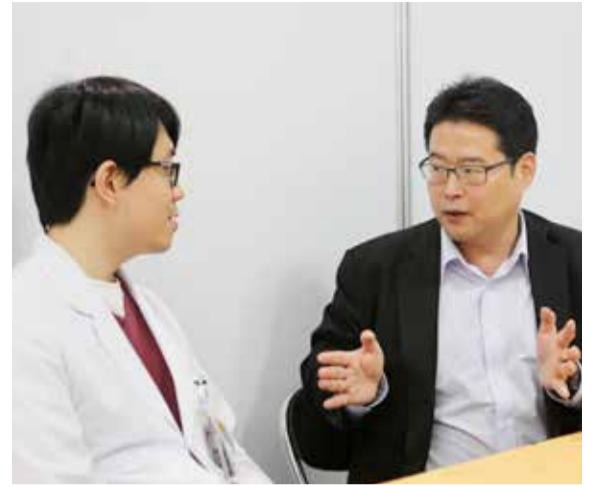


## 두근두근 맥, 일차성 부정맥과 이차성 부정맥

심장 내에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부정맥을 일차성 부정맥이라하며, 심근경색, 심근병증, 선천성심장질환 또는 심부전등에서와 같이 심각한 심장병 환자에서 합병되어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된 경우를 이차성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차성 부정맥의 경우 원인 심장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며 심장 상태가 안 좋을수록 부정맥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중증 부정맥인 심실빈맥이나 심방세동 등은 일차성으로 발생하기도하지만 이차성 부정맥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차성 부정맥은 심장초음파등 기본적인 심장검사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관찰 되지 않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심방세동과 심실빈맥이외에도 기외수축 또는 발작성 빈맥증등이 있습니다. 유전성자 질환에 의한 일차성 부정맥의 경우에서와 같이 치사성 빈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정맥이 적절하게 치료되면 대부분 심장 기능에는 큰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



## “선배님! 전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의대생, 전공의 대상으로 한 커리어페어 성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 모여 1:1 개별 상담 진행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11월 5일 오후 5시 30분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Career Fair: 경력컨설팅(for young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을 개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임상사로서의 길 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와 길이 있음을 소개하고자 개최된 이번 커리어페어는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임상 의사 외의 기업, 공공의료기관, 사업, 언론, 법조계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각 직종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멘토로 참석한 전문의는 ▲김진용 존슨앤존슨 소속(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난희 다케다제약 소속(산부인과 전문의) ▲양태연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감염내과 전문의) ▲정제혁 보건복지부 사무관(내과 전문의)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의사) ▲최종성 녹십자셀부사장(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서영진 Bain & Company 컨설턴트(내과 전문의) ▲이지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의사)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9명이 참석해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하고 있는 업무, 장단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멘토들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간간이 의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며 단점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복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멘토들의 강의 이후에는 분야별로 부스를 만들어 참가자들이 직접 멘토들과 1:1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지어 직접 상담을 받고 평소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생생한 정보를 전달 받았다.

김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디컬 닥터로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의 길도 있지만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의분들처럼 각계각층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주신 여러 선배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을 계기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전라남도 장성군과 의료협력 체결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10월 28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본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성군(유두석 군수)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훈 안암병원장을 비롯해 김호용 경영관리실장, 조윤수 간호부장 등 안암병원 주요 관계자와 유두석 전라남도 장성군수, 이조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숙 보건소장 등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전략적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협력 추진 ▲지역주민 대상 무료진료 등 사회 공헌 활동 ▲지역환자 진료 의뢰시 감면 혜택 ▲지역특산물 할인 공급 및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함께 상생하자고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고대안암병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민을 비롯한 군 산하 직원들은 안암병원에 입원료 시 선택 진료비의 30%, 종합건강검진비의 2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등의 사회 공헌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은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의료 환경 개선 등의 노력과 더불어 고대안암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슛포러브’ 통해 소아암 환자 무료 치료 동참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국내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를 모금하는 ‘슛포러브(shoot for love)’에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국내외 유명 축구 스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 캠페인 슛포러브에 고려대 안암병원이 소아암 환자의 무료 치료를 결정하는 뜻을 밝혔다.

초대형 양궁 과녁을 축구공으로 맞춰 획득한 점수가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로 책정되는 ‘슛포러브 챌린지’는 그 동안 국내 안정환,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을 비롯해 해외 축구 레전드라 불리는 푸울, 라울, 존 테리 등 20여명이 넘는 세계 유명 축구 스타들의 참여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고득점을 향한 선수들 간의 깨알 같은 선의의 경쟁 및 소아암 환아들을 향한 그들의 응원 메시지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은 ‘슛포러브’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병원은 문턱이 높으면 안된다. 항상 환자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서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슛포러브 캠페인을 계기로 도움이 꼭 필요한 소아암 환아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 📌

## 환자안전지킴이 출동! 제4회 안전지킴이 워크숍 성료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11월 2일, 9일 이틀에 걸쳐 의과대학 4층 강의실에서 제4회 안전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적정진료관리부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환자안전을 위한 위험관리 활동(곽미정 적정진료관리부팀장) ▲근본원인분석(RCA)의 이해(김은희 적정진료관리팀)의 강의로 시작되어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존의 워크숍과 차별을 두었다. 4~5명으로 이루어진 조를 구성해 조원들끼리 투약오류, 수혈오류, 외국인 환자확인 오류, 검사시약오류 등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 설계하는 등 직접 실습을 진행했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은 “실제 오류사례를 직접 실습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워크숍이 끝난 후 팀 내 팀원들에게도 교육내용을 전파하여 병원 내 환자안전 문화 의식이 더욱 고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좋은 의사를 만나다 ...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

불안해하는 환자 손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진짜 '좋은 의사' 아닐까요

대표적인 부인암(癌)인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난소암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치사율이 높아 매우 위협적인 암이다. 자궁내막암 역시 중년이상 여성에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재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부인암 전문가이다. 즉 암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내는 환자를 매일 만난다는 의미이다.

“전공을 택할 때 별 고민 없이 부인종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때 절친한 선배가 암환자들의 손을 정말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환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의사, 먼저 다가가는 의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암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쩌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아닐까요.”

송 교수의 진료철학은 확실했다. 의사로서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더해 환자의 아픔까지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부인암을 앓는 대다수환자가 어머니 또는 아내이다 보니 가족의 건강만 생각했지, 정작 본인치료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의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진료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

송 교수는 “한 환자가 진료 받는 것을 꺼리기에 침대 옆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듣다보니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암을 치료 받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때부터 환자의 마음 속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수술이나 진료뿐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암의 발생기전을 찾는 유전자변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암의 발생기전을 밝혀야만 이를 예방하고 치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교수는 지난 2011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산부인과학회에서 '난소로 전이된 충수돌기의 술잔세포 유

암종에 대한 증례'를 발표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학술대회에서는 '병기설정수술을 받은 후 재발한 자궁내막암환자에게서 시행한 복강경하 대동맥 주위 림프절절제술'을 성공해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산부인과학회지 SCI논문 최대인용상을 수상했다.

“암 환자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결과를 보러 와 무척 불안해하면서 뭘 먹어야하고 뭘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암치료를 위해 몇 달 동안 아예 치료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분들에게 마음 편히 평소처럼 지내라고 당부합니다. 단 어떤 일든 즐거운 마음으로요. 암 선고는 인생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거든요. 그 경고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 즐겁게 생활하면 얼마든지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

##### 전문진료분야:

부인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 로봇수술

##### 담당클리닉:

부인종양 클리닉, 골반경 클리닉, 자궁근종 클리닉

- 자궁경부암, 난소암, 복강내 종양, 그 외에 양성 난소 종양, 자궁근종 전문 진료
- 악성질환에 대한 수술 및 양성 질환에 대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선두주자로 다수 학회에서 특히 로봇수술에 대한 활발한 강의 시행
- 대한부인 종양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암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

# 희망을 전합니다

희망우체통에 소망을 담은 편지를 넣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1년 후 배송해 드립니다.

질병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여러분께  
디딤돌이 되는 희망우체통입니다.

희망으로 꿈을 이어갑니다  
희망으로 질병과 거릅니다  
희망을 나눕니다

안암동 편지

\* 희망우체통은 안암병원 8층 86병동에 있습니다.

진료예약 1577-0083